

# 정읍시 재정 운영·관리 능력 크게 향상

### 행안부 평가 '라'→'나'

###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

### 관리채무 등 7개 지표 우수

정읍시의 재정 운영·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종합등급 '나' 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받은 '라' 등급보다 2단계 상승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행안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주요 지표를 인구와 재정 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평가한다.

올해는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정읍시는 13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종합평가에서도 '나' 등급을 받았다.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관리채무 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등 2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고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는 체납액 관리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 3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적극적인 제납 지방세 징수와 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성과를 낸 결과다.

'재정 계획성' 분야는 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과 세수 오차 비율 등 2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해 지속적으로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순창발효소스생산동 전경.

## 순창군 장류 제조·포장 발효소스생산동 개관

###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

순창군이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에 장류 소포장과 제조시설 등을 갖춘 발효소스생산동을 개관했다.

전통발효식품 집적지구는 고추장 장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로 순창 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비법을 이어가며 제조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군은 전통장류의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되고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소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발효소스생산동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발효소스생산동은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9억과 지방비 21억 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축했다.

1층에는 소포장, 소스제조시설로 이루어진 공

동생산설비실과 공동 저온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에는 교육실습실, 회의실, 공유오피스, 사무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로타리 파우치 포장기와 액상 삼면 스틱 포장기, 농축배합탱크 등 소스를 제조하고 다양한 형태로 포장할 수 있는 가공장비를 갖추고 있어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교육실습실, 공유오피스를 통해 생산설비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발효소스생산동에서는 누구나 장비를 활용해 장류 제품을 생산 포장 판매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은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장류시장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kwangju.co.kr

## 남원 달오름마을 농촌체험휴양 '으뜸촌'

### 농식품부 평가 1등급

남원의 한 농촌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1등급인 '으뜸촌'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503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 음식, 숙박 등 4개 부문에 대해 실시했으며 등급은 1급, 2급, 3급, 등외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4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만이 '으뜸촌'에 선정된다.

등급 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외부 평가전문기관인 (주)한국경영인증원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심사단을 꾸려 직접 마을을 방문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5개 마을만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됐고, 전북에서는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마을과 정읍시 황토현면 녹두량시루랑 마을이 선정됐다.

달오름마을은 문화복지, 농촌경관, 도농교류,



남원시 인월면 달오름마을 입구에 설치된 달오름장승.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등의 여러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주민들은 황태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을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해 남원다운 농촌, 활력 넘치는 행복한 농촌마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 군산시,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본격화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고군산군도-새만금 연계를 통한 친환경 해양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금강하구 준설토 투기장 '금란도(인공섬)'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인근 지역과의 화합을 통해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에 체결한 전북 군산시의 충남 서천군의 지역상생협력기본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도로 금란도·장항항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업체는 항만재개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에 대한 지역 주민대표·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란도 사업발굴을 위해 서천군과 공동으로 금강하구 그랜드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항만재개발 사업을 지역상생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란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은 2020년 12월 해수부에서 고시한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 계획에 반영됐다.

규모는 사업면적 202만2343㎡, 사업비 4344억 원에 생활체육시설 및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한



군산시해당동과 소룡동 앞 금강 하구에 있는 인공섬 금란도(金卵島).

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항만재개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수립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익산시 신청사 첫삽...2024년 11월 완공

### 현 청사 주차장에 948억 들여 건립

익산시가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목표로 고품격 신청사 조성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최근 현 청사 뒤편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지역의 숙원해결에 나섰다.

익산시의 청사 신축은 지난 1970년 현 청사가 들어선지 50여년 만에 건립된다.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조성된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948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4만2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신청사와 시의회청사가 연결해 건립된다.

청사에는 업무공간, 다목적홀, 어울림마당, 시민홀, 시민교육장 및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 목표는 오는 2024년 11월이다.

시는 청사를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시의 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

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을 통해 확정돼 행정절차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쳤다.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건립된다.

건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유산인 마륵사지 석탑을 형상화한 모형으로 최종 설계됐다.

시는 시민친화적 청사로 조성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주민편의시설 선호도 조사,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신청사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상 52면, 지하 431면 등 총 483면의 주차장이 들어서며 제2청사 인근에 265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시는 신청사 건립과 함께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시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청사'를 목표로 고품격 신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